

민주 광주 경선 이번 속출...8곳 중 4곳 재심 진행

구청장 출신들 정치신인과 1~2% 접전 패배 나막

검찰 고발 앞둔 광산갑 이석형 후보 후폭풍 클 듯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지역 선거구 8곳의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하지만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부 예비후보들의 재심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재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경선에선 재선의 구청장 출신 후보들이 잇따라 정치신인에게 패배하는 이번도 속출했고, 정치신인 가산점을 통해 1~2%내외의 박빙 승부 결과가 나온 곳도 많아 8곳 중 4곳에서 재심이 진행됐다.

특히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광산갑 이석형 후보의 경우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통해 광주 동남갑 윤영덕, 동남을 이병훈, 서구를 양향자, 북구갑 조오섭, 북구를 이형석, 광산갑 이석형, 광산을 박시중 예비후보가 총선 후보로 선정됐다.

또 이날 민주당은 송갑석 현 국회의원을 서구갑 단수 후보로 결정해 공천을 확정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대부분 지역

에서 박빙 승부가 연출됐다.

구청장 출신과 정치신인이 맞붙은 선거구에서는 1~2위간 1~2%대의 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번도 많았다. 실제 동남갑과 광산을의 경우, 재선 구청장 출신인 최영호·민형배 예비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경선 결과, 패기의 정치 신인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윤영덕 예비후보와 박시중 예비후보는 각각 재선 구청장에 지역위원장 출신인 최영호·민형배 예비후보를 상대로 2%안팎의 신승을 거뒀다.

특히 윤영덕·박시중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뒤지고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서는 등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최대 이번으로 손꼽힌다.

통상 전·현직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유리하고, 재선 구청장의 지역 내 인지도를 감안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선거구는 애초 재선 구청장을 포함한 3~4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펼쳤지

만 실제 경선에서는 '전 구청장 대 신인'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점도 이번의 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1대1 대결이 되면 지역 내 정치 기득권 세력인 전 구청장들의 반대 세력이 한 곳으로 결집한 결과가 이같은 경선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윤영덕·박시중 예비후보는 20%의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으면서 극적으로 승리해 민주당의 신인 가산점이 당락을 뒤바꾼 대표적인 경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재선 구청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큰 산을 정치 신인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신인 가산점의 힘이 컸고, 경선 전 낙마한 일부 예비후보들의 조직이 재선구청장이 아닌 정치 신인과 손을 잡은 결과다"면서 "무엇보다도 정치신인의 승리는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의 표심을 좌지우지해 왔던 과거 관행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낙마한 후보들의 재심 신청과 검찰 고발 등 경선 부작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동남갑 최영호 후보, 북구를 전진숙 후보, 광산갑 이웅빈 후보, 광산을 민형배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 입구에서 자치구 공무원이 집합예배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408개 개신교회 자제 호소에도 집합예배 강행

1043곳은 영상·가정예배

광주시 가정예배 대체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의 거듭된 집합예배 자제 호소에도 400개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요일인 이날 오전 관내 1451개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예배 자제를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 등 공무원 2500여 명은 '오늘은 가정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각 교회 앞

에서 집합예배 자제 캠페인을 했다.

하지만 전체 교회 중 28.8%인 408개 교회가 예배를 진행했다. 나머지 1043개 교회는 영상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했다. 일부 신도들은 광주시의 집단예배 자제 호소에, '종교 자유 탄압'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구별로는 동구에서 72개 교회 중 20개 교회가 예배를 했으며, 서구는 229개 중 88개, 남구는 164개 중 43개, 북구는 601개 중 160개, 광산구는 385개 중 97개 교회가 예배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1~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정될 때까지 집합예배를 자제하고 가정예배 등으로 대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신천지 예배 등 다중 집합행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공공기관에 인허가 권한이 있는 다중 집합행사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민간단체 집합행사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달빛 동맹' 병상 나눔...코로나19 대구 확진자 12명 광주 추가 이송

달빛(달구벌·빛고을) 동맹 병상 연대를 통한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광주로 추가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지난 7일 오후 감염병 전담병원인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상태였던 5가족 7명 환자들이다. 확진자들은 가족별로 구급차에 나눠 타고 달빛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송됐다.

이날 오월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광주시 관계자 등 50여 명은 병원 앞에서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는 하나입니다'라

고 쓰인 현수막 들고 대구에서 온 확진자들에게 "치료 잘 받고 가세요"라는 등의 격려의 말 등을 전했다. 이에 확진자들도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8일 현재 대구에서 광주로 온 경증 확진자는 지난 4일 2가족 7명 등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광주의 대형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7명의 타지역 이송 중증환자까지 더하면 타지역 26명이 광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지에서 온 확진자들이 불편함 없이 치료를 잘 받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며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안팎의

감염병 예방 활동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생활 치료센터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소방학교 생활관을 제1 생활 치료센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확진자 확산 추세 등을 판단해 5·18 교육관을 제2 센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2개 시설은 각각 77실, 27실 등 모두 104실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의료지원, 구급시설, 시설관리 등 5개 방을 편성하고 의료진, 경찰·소방 인력 등 모두 80여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도부·중진·86그룹 대거 물갈이 피했다

민주 전국 30곳 단수공천

송갑석·송영길·전해철

이인영·우상호·김경협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30곳에 대한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 광주에서는 서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갑석 광주시 당위원장이 단수공천됐다.

지역 출신으로는 고흥 출신의 송영길 의원, 목포 출신의 전해철 의원,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 해남 출신의 박광운 의원, 장흥 출신의 김경협 의원, 장성 출신의 기동민 의원 등이 단수공천에 포함됐다. 특히, 최고위원과 주요 지도부 인사와 중진 등 현역 의원 상당수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4·15 총선 본선에 '무혈 입성'했으며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도 물갈이를 피해 공천을 받게 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구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되는 현역 의원에는 이인영 원내대표(3선·서울 구로갑), 윤호중 사무총장(3선·경기 구리), 박광운(재선·수원정)·박주민(초선·은평갑) 최고위원, 김성환(초선·노원병)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포함됐다.

우원식(3선·서울 노원을)·홍영표(3선·인천부평을)·우상호(3선·서대문갑) 전 원내대표와 친문 실세인 전해철(재선·안산상록갑) 의원에 단수 추천됐다. 김진표(4선·수원무), 송영길(4선·인천 계양을), 안민석(4선·오산), 김태년(3선·성남수정), 안구백(3선·동대문갑), 김경주(3선·영등포갑) 의원 등 중진들도 포함됐다.

이 밖에 홍익표(재선, 중구·성동갑) 전 수석대변인과 박홍근(재선·중랑을), 이원욱(재선·화성을), 인재근(재선·도

봉갑), 한정애(재선·강서병), 김경협(재선·부천원미갑) 의원이 본선에 직행한다. 아울러 신동근(초선·인천 서구을), 송갑석(초선·광주 서구갑), 백해련(초선·수원을), 김영진(초선·수원병), 기동민(초선·성북을), 박용진(초선·강북을), 김영호(초선·서대문을), 김철민(초선·안산상록을), 권철승(초선·화성병) 의원에 단수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천 과정이 본격화하기 이전 당 일각에서는 '86그룹'을 향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들 다수는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이날 단수 추천된 당내 86그룹으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우상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우원식·홍익표·기동민·김영진·신동근 의원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 등이 포함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제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